대북제재 받아들인 中 "6자회담 재개해야"

ARF서 관련국 압박 외교전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지목
北도발과 '쌍중단' 조건 걸어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트랙인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관련국들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번 대북제재가 대북 원유공급 중단조치는 빠졌으나 역대 최고 수준의 포괄적 경제제재로 평가받는 가운데, 그 제재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억제를 위해 6자회담을 이른 시일내에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외교전에 나선 형국이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힘을 합쳐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을 겨냥해 중국의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는 외교채널 또는 '공산당 대 노동당' 루트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어 보이며, 한미일 3국에는 각종 외교루트로 대화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는 봉쇄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안보리 제재에 집중한다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맞서 이달 중에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 역시 남북대화 제의도 무시한 채 강수를 두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6자 회담 재개 드라이브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외교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장인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 대화 재개를 촉구한 내용을 부각해 소개했다.

관련 내용에 왕 부장이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고 북·중 관계도 영향을 받았다. 중국 측은 한반도 핵 문제 원칙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현재 정세는 위기가 임계점에 가까워짐과 동시에 결단을 내려 대화를 재개할 전환점이기도 하다"고 말한 점이 들어있다.

왕 부장의 이런 언급을 통해 중국 외교부는 대북제재 만큼이나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왕 부장이 "중국 측은 북한이 더는 유엔 안보리 위반을 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도 한반도 정세 긴장을 가속하지 않길 촉구한다.

각국이 자제를 유지해야 하고 최근의 유관국이 보내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자국민과 지역 평화에 대해 책임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한 언급도 소개됐다. 이는 한미일 3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ARF 회담을 위해 각국 외교장관들이 모인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6일 왕 부장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나 6자회담 재개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왕 부장은 "유관국이 대화를 만드는 조건을 회복하기 위해 자제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며 긴장 국면을 상승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며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을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왕이 부장은 같은 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서도 "제재만이 북핵 해결방안이 아니다"며 쌍중단 수용 요구와 함께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아베 개각 특수 '3일 천하'
지지율 2%P 증가에 그쳐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내놓은 회심의 개각카드가 사흘만에 지지부진해 보인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비판세력까지도 새 각료 명단에 넣고, 일본 내 저항이 거센 전쟁국가 지향 개헌 카드로 일부 유보하는 조치를 한 데 대해 하루이틀은 크게 반등하는 듯 하더니 그 이후에 탄력을 받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5~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전화·18세 이상 2153명)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로 개각 이전인 지난달 8~9일 조사때의 33%에서 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신문의 조사 시점은 개각 이틀째와 사흘째였다. 아사히의 이런 조사결과는, 개각 당일과 그 다음날 실시한 마이니치신문가 교도통신의 여론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해당 언론사의 직전 조사 때보다 각각 9%P(35%), 8.6%P(44.4%) 올랐던 것과는 비교된다.

물론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그리고 아사히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개각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지속하지 못하고 갈수록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 연루의혹과 측근들의 잇따른 설화(說禍)·비위 등의 영향을 받아 지지율이 지난달 20%대 중반까지 떨어지는 등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북중부 카라보보주 발렌시아에서 6일(현지시간) 제헌의회 출범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대가 진압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네수엘라 군기지 피격…반정부 세력 2명 사망·8명 체포
과도 정부 구성·자유선거 주장

개헌 권한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헌의회 출범 이후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소규모 반정부 무장세력이 군기지를 공격했다가 진압됐다.

6일(현지시간) 국영 VTV 등 현지언론과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북중부 카라보보 주 발렌시아시에 있는 푸에르테 파라마카이 군 기지(FANB)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다. 볼리바리안 국가수비대 소속 제41기갑여단의 주둔지에서 발생한 총격전으로 기지를 공격하던 무장세력 중 2명이 숨지고 8명이 체포됐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VTV에 출연해 "신원이 확인된 공격 가담자 10명 중 1명만이 제명된 육군 중위였으며 9명은 민간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국가수비대 장교라고 밝힌 후안 카를로스 카구아리파노는 온라인에 배포한 동영상에서 "이번 봉기는 쿠데타가 아니지만, 헌법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군사적이며 민간 부문의 합 법적인 반란"이라며 과도 정부 구성과 자유선거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4 당나라 장수 이세적

신라 김인문과 '나당연합군' 이끌어

이세적(李世勣, 594-669)은 산둥성에 해당하는 조주 이호 출신으로 자는 무공이다. 본명은 서세적이나 당고조로부터 이씨성을 하사받았다. 태종, 고종 양대에 걸쳐 무공을 세워 능연각 24인으로 선정됐다.

그는 수양제 말기 천하가 혼란스러워지자 611년 농민 봉기에 가담하였다. 반군 지도자 이밀 휘하에 들어가 공을 세워 동해군공에 봉해졌다. 이밀이 왕세충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자 같이 당에 귀순했다. 여양총관에 임명되고 이세민 진영에 참여했다. 정관 3년(629년) 돌궐에게 크게 이겨 5만명을 포로로 획득하는 공을 세웠다. 이후 병주에 진군하면서 돌궐의 남침을 막았다. 정관 15년(641년)에는 내몽골에서 세력을 떨치던 설연타를 격파했다. 싸움에서 이기면 아랫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얻은 재화는 모두 장수와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싶어 했고, 향하는 곳마다 승리했다.

태종은 일찍이 중신들에게 "지금 명장은 오직 이세적 이도종 설만철 세 사람 뿐이다"라며 무공을 높이 평가했다. 643년 그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렸다. "수염을 태워 재를 만들어 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태종은 수염을 잘라 약에 탔다. 그는 크게 감동해 피가 나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울면서 감사했다. 황제는 "사직을 위한 것이다. 경을 위한 것이 아니다. 어찌 감사할 것이 있겠는가"고 말했다. 태종은 어느날 연회에서 "짐이 여러 신하 중에 어린 고아를 의탁할 만한 자를 찾아보니 공보다 나은 자가 없다. 공은 지난번에 이밀을 져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짐을 버리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는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맹세했다. 그가 대취해 잠이 들자 황제는 어복을 벗어 덮어 주었다고 한다.

정관 말년 고구려 정벌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구려는 장군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그의 조카를 보장왕으로 세웠다. 태종은 요동 정벌을 결심했다. 요동 정벌은 일찍이 위징이 반대했으며 방현령, 저수량 등 중신도 반대 입장이 완강했다. 이세적은 황제에게 정벌을 권했고 태종의 친정이 이루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649년 태종이 중병에 들었다.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동중서문하삼품에 있던 이세적을 변방인 첩주도독으로 내보냈다. 태종이 그를 내친 이유는 후계자인 이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그의 충성심을 확보하려 했기 때문이다. 태종은 말하기를 "이세적은 재주와 지모가 충분하나 너가 그에게 베푼 은혜가 없으니 잘 다루지 못할까 걱정스럽다. 내가 그를 내칠 것이니, 만약 그가 즉시 떠나거든 내 사후에 너가 등용해라." 그가 집에도 들르지 않고 출발한 것은 태종의 깊은 뜻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고종은 부친을 옆에서 모셨던 궁녀인 무측천을 총애했다. 그녀를 새로이 황후로 삼으려 했다. 654년 고종은 장손무기, 이세적, 우지녕, 저수량을 내전으로 불렀다. 황후 교체에 관해 중신들의 동의를 구하려 한 것이다. 저수량은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우지녕은 감히 말하지 못했다. 이세적은 병을 핑계대고 들어가지 않았다. 다음날 다시 입궐해 황제를 알현하니 황제는 "짐이 무측천을 황후로 세우려고 하는데 고명대신인 저수량이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린다. 황후 교체를 포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문했다. 그는 "이는 폐하의 집안일입니다. 왜 반드시 남에게 더 물어야 합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고종은 황후 교체를 결심하게 되었다.

668년 그는 병사를 이끌고 설인귀의 당군과 신라군을 지휘해 평양성을 함락시켜 고구려를 멸하였다. 669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병이 깊어지자 의사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본래 산동의 농부였는데 훌륭한 황제를 만나 삼공의 지위에 올랐다. 수명의 길고 짧음에 기한이 있는 것이니 어찌 또 의사에게 가서 살기를 구하겠는가"고 말하였다고 한다. 정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태종의 능인 소릉에 배장되었다. 무덤을 음산, 철산, 오덕건산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는데 돌궐과 설연타를 이긴 공을 나타낸 것이다.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음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음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음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음 지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담후결정)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중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융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토지] 전남 국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토지] 북구 삼각동 1종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 은 희 010-6243-3704